

# 꾸준한 최형우... 멀티히트 52회·3안타 17회 '타격의 달인'



최형우



**KIA 윌리엄스 감독, 올 시즌 최대 단어는 '꾸준함'**  
 최형우, 통산 33번째 1700경기 출장·5번째 3400루타  
 올 타율 0.347 리그 3위...결승타 17회 2위  
 감독 "부상 관리하며 성적 꾸준·리더십도 탁월" 극찬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이 올 시즌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꾸준함'이다. 전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KIA의 2020시즌은 '꾸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저런 아쉬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윌리엄스 감독의 바람과 같은 시즌을 만든 선수가 있다. 방출의 아픔을 딛고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우뚝 선 최형우가 그 주인공이다. 최형우는 지난 20일 NC와의 홈경기에서 2회 선두타자로 나와 17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2002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진출한 최형우는 입단 첫해 4경기 출장에 그쳤고 2003년에는 아예 1군 기록이 없다. 2004년 2경기를 끝으로 방출선수가 됐던 최형우는 경찰청에서 칼을 갈고 뒀다. 그리고 2008년 다시 삼성에 재입단해 '최형우'의 역사를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2008년을 시작으로 13시즌 동안 꾸준하게 기록을 쌓으면서 KBO리그 상위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 KBO리그 통산 33번째 1700경기 출장을 이룬 타석에서 최형우는 3400루타 기록까지 작성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3루타'가 부족했지만, 첫 타석에서 우월 솔로포를 날리며 한 번에 '4루타'를 터쳐 3400루타를 넘어섰다. 이는 통산 5번째 기록

이다. '꾸준함'의 대명사인 최형우의 올 시즌도 꾸준함 그 자체였다. 7월 4일부터 세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게 최형우의 올 시즌 가장 긴 침묵. 이 경기 포함 두 경기 연속 '빈손'으로 돌아선 적은 세 차례밖에 없었다. 132경기에서 52차례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3안타를 장식한 날도 17차례에 이른다. 당연히 타율이 높다. 0.347의 타율로 롯데 손아섭·KT 로하스(이상 0.353)에 이어 전체 3위다. 월별로 봐도 꾸준하다. 5월 24경기에서 가장 낮은 0.270의 타율을 기록했지만 12 타점을 올렸고, 6월 0.371, 7월 0.330, 8월 0.374를 찍었다. 9월 이후 타율도 0.373이다. 영양가도 높다. 최형우가 결승타로 승리를 이끈 경우는 17번에 이른다. 1위 팀 NC 나성범(19개)에 이어 결승타 2위다. 팀의 시즌 첫 100타점 기록은 간발의 차이로 터커(104타점)에게 내줬지만 20일 현재 107타점으로 팀 내 1위, 전체 공동 6위다. 윌리엄스 감독도 이런 최형우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다. 윌리엄스 감독은 "최형우는 매우 꾸준한 선수다. 한 번씩 손목, 허리 통증과 싸워야할 때도 있지만 매일 라인업에 올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리더십도 뛰어나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그 자체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형우의 꾸준하면서 강력한 타격에 대해서는 '아는 게 힘'이라는 분석을 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자신을 잘 알고 있다. 본인이 들어가는 상황을 잘 분석한다. 득점 상황이라고 하면 적시타를 터트릴 줄 알고, 단순히 안타를 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타를 친다"며 "이런 능력은 가지고 태어났다기 보다는 경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1700경기를 하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다"고 최형우의 경험과 노력을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어제 KIA-NC전 우천취소

'공룡군단'의 창단 첫 우승 도전이 하루 더 미뤄졌다.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16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낮부터 이어진 비가 오후 늦게 끊어지면서 결국 경기가 열리지 못했다. 이와 함께 어제 승리로 매직넘버를 '1'로 줄였던 NC의 우승 도전도 미뤄졌다. NC는 전날 KIA에 13-3,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에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날 취소된 경기는 추후편성이 될 예정이다. 한편 KIA는 22일 대전으로 가서 한화 이글스와 시즌 마지막 대결을 갖는다. 임기영이 아닌 가능성이 선별로 출격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메시, 발로 쓰는 UCL 역사

(유럽챔스리그)

사상 첫 16시즌 연속 득점...바르샤, 조별 1차전 페렌츠바로시에 5-1 승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사상 최초로 16시즌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바르셀로나는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페렌츠바로시(헝가리)와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1차전 홈 경기에서 5-1로 완승했다. 선발 출전한 메시는 전반 27분 페널티 킥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섰고, 왼발로 찬 공이 정확하게 골대 구석을 찼다. 챔피언스리그 통산 116번째 골. 이로써 메시는 2005-2006시즌부터 16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골맛을 봤다. 페렌츠바로시는 이 대회에서 메시에게 골을 허용한 36번째 팀이 됐다.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챔피언스리그에서 16시즌 연속 골을 기록한 것은 메시가 처음이며, 16시즌 동안 골을 넣은 선수는 메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잉글랜드)의 전설 라이언 깁슨뿐이다. 메시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바르셀로나는 전반 42분 안수 파티, 후반 7분 필리피 코치뉴의 득점으로 3-0까지 앞섰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23분에 제라르 피케의 퇴장과 함께 페널티킥 골을 허용하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후반 37분과 44분 페드리와 우스만 뎀벨레의 추가 골로 승리를 자축했다. 이날까지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치른 챔피언스리그 37경기 무패(33승 4무) 행진을 달렸다. 같은 조의 유벤투스(이탈리아)는 디나모 키예프(우크라이나)를 2-0으로 물리쳤다. 유벤투스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한 가운데 알바로 모라타가 멀티 골로 승리를 견인했다. H조에 속한 맨유는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2-1로 꺾었다. 전반 23분 브루누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 골로 앞선 맨유는 후반 10분 앙토니 마르시알의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했지만, 후반 42분 마커스 래시퍼드의 결승 골이 터졌다. 네이마르가 챔피언스리그 4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주포' 킬리안 음바페마저 침묵한 PSG는 2004년 12월 CSKA 모스크바에 1-3으로 진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패배를 맛봤다. /연합뉴스



## KIA,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

KIA 타이거즈가 1차지명 이이리(광주일고 투수)와 계약금 3억원, 연봉 3000만원에 입단계약을 완료했다. KIA는 이외에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된 10명 등 2021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끝냈다. 2차지명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고려대 투수 박건우는 계약금 1억 3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2라운드 장민기(용마고·투수)는 계약금 1억원에 계약했다. 3라운드 영동대 투수 이승재, 4라운드 신일고 포수 권혁경, 5라운드 유신고 외야수 이영재는 각각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의 계약금을 받는다. 김원경(비봉고·내야수), 장시현(충암고·내야수)은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에 입단계약을 했다. 이준범(동성고·내야수), 김선우(강릉고·포수),

◇ 2021 신인 드래프트 지명선수

순위	이름	포지션	출신고	계약금
1차 지명	이이리	투수	광주일고	3억원
1R	박건우	투수	고려대	1억 3천만원
2R	장민기	투수	마산용마고	1억원
3R	이승재	투수	강릉영동대	8천만원
4R	권혁경	포수	신일고	7천만원
5R	이영재	외야수	유신고	6천만원
6R	김원경	내야수	비봉고	5천만원
7R	장시현	내야수	충암고	4천만원
8R	이준범	내야수	광주용성고	3천만원

박대명(동성고·투수)의 계약금은 3000만원이다. 연봉은 모두 3000만원이다. /김여울 기자 wool@

## 다저스, WS 기선제압

커쇼 호투...탬파베이에 8-3 승

32년 만에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 정상 정복에 나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투타의 우위를 앞세워 첫판을 잡았다. 다저스는 21일 막을 올린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1차전에서 탬파베이 레이스를 8-3으로 제압했다.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탬파베이 최지만은 1-8로 뒤진 7회 1사 2·3루에서 대타로 등장해 한국인 타자 첫 월드시리즈 출장 이정표를 세웠다. 다만 이 순간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우안 딜러 플로로 대신 좌완 빅토르 곤살레스로 교체했고, 이에 케빈 캐시 탬파베이 감독이 다시 우타자 마이크 브로소로 내세운 바람에 최지만은 타석에서 서보지 못하고 '기록상 출전' 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양 팀의 2차전은 22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전남 박찬용, K리그2 24라운드 베스트 11

자책골과 결승골을 동시에 기록한 전남드래곤즈의 박찬용이 K리그2 24라운드 MVP에 등극했다. 박찬용은 지난 1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경기 시작 30초 만에 자책골을 기록한 그는 3-3으로 맞선 후반 43분, 이번에는 상대 골대를 가르면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골키퍼 박준혁의 실수 연발로 동점을 허용했던 전남은 박찬용의 '결자해지'로 승점 3점을 보태며 6위에서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다. 재치 있는 움직임으로 공격의 활로를 뚫으면서 1도움을 기록한 에르난데스와 시즌 2호골에 성공한 이후권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극적인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인 전남은 24라운드 베스트팀과 베스트매치에도 이름을 올렸다. K리그1의 25라운드 MVP는 울산과의 '동해안



다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포항의 4-0 승리를 이끈 일류첸코에게 돌아갔다. 올 시즌 세 번째 라운드 MVP로 울산 주니오와 함께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베스트 매치는 5골이 터진 광주FC와 전북 현대의 경기가 선정됐다. 이 경기에서 전북은 4골을 몰아치면서 선두 울산(54점)과 승점을 동률로 만들었고,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동물이 된 전북과 울산은 25일 오후 4시 30분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사실상의 K리그 '결승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